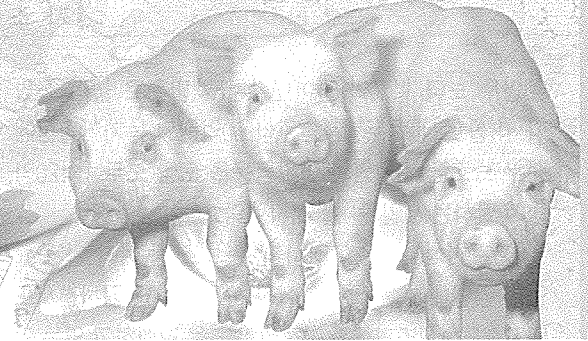


축산정보



식품위생업무 농림부 장관 타당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9월 29일 축단협 성명을 통해 최근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조직, 전문인력, 필수장비, 축적된 경험을 쌓고 있는 생산부처인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식품은 수많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 등 가축방역과 연계하여 위해요소추적을 통해 모든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관리해야 안전성이 보장되며,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면, 축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시 돼지고기 자급률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밝힌 한·미 FTA 영향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안)에 따르면,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5년 84.2%에서 10년 후 75%, 15년 후 70%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FTA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증가되면 돼지고기 자급률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냉동 삼겹살 가격이 벨기에와 칠레,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수입국가보다 낮아, 미국산 돈육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더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림부,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품목 축소검토

농림부가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중 내성률이 높은 품목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친환경 축산 및 사육단계 HACCP 등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현재 25종인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중 내성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생제 그룹별로 일정기간 배합사료 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생제 구입 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폐사두수 지속 증가세

3분기 65만5천두 폐사 사상최고 경신

돼지 폐사두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3분기 가축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감소한 돼지 두수는 523만7천두로 전분기보다 3만3천두인 0.6%가 감소했다.

감소한 돼지 두수는 출하두수와 폐사두수를 함께 계산한 수치로, 폐사두수는 65만5천두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3.0%(1만9천두), 전년동기대비 17.2%(9만6천두) 큰 폭으로 증가해 사상최고였던 전분기 기록을 깨면서 다시 사상최고치를 보였다.

한편 폐사두수 65만5천두를 비육돈 1두당 20만원으로 산정시 그 피해금액 약 1,300억원으로 양돈협회는 돼지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9월 도축두수 회복 - 117만두 기록

돼지 도축두수가 지난 7월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8월에는 107만두, 9월에는 117만두를 기록하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9월 도축두수 집계결과에 따르면 암돼지 59만5천37두, 수돼지 58만2천261두를 기록하여 총 117만7천298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2% 증가하고 전월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까지 집계된 총 돼지 도축두수는 953만1천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줄었으며, 돼지 생체중은 평균 109kg을 나타냈다.

갈비 등 돈육재고량 감소세

돼지고기 재고량이 지난 6월과 7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갈비 부위는 조사재고량이 395톤으로 전월대비 35.3%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월 돼지고기 조사재고량은 총 3천480톤으로 전월대비 7.1% 줄었으며, 목등심과 후지 부위를 제외하고 전 부위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은 조사재고량이 62톤으로 전월대비 5.2% 줄었고, 등심은 544톤으로 전월대비 0.2% 감소, 전지부위는 532톤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했으며, 삼겹살은 550톤으로 3.0% 감소했다. 후지와 목등심은 각각 전월대비 1.6%, 13.6% 증가했다.

3분기 종돈 수입 737두로 크게 증가

3분기 종돈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3분기 종돈 수입두수는 737두로 2분기 493두 대비 약 50%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9월까지 종돈두수는 1천386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26두 대비 13% 증가했다. 품종별로는 요크셔가 520두로 전체 수입두수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수입됐다. 또한 랜드레이스는 463두로 33%를 차지했고, 듀록이 343두로 25%, 햄프셔가 36두로 3%, 버크

셔 24두로 2%를 각각 차지했다.

8월 양돈사료 생산량 소폭 증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양돈사료 생산량이 지난 8월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양돈사료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8월 양돈사료량은 돼지 두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 41만647톤보다 2.3% 늘어난 41만9천919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지난해는 42만9천톤으로 올해 8월 사료량이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용도별로는 젓먹이돼지용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젓먹이돼지용은 2만5천830톤으로 전월대비 15.7%나 증가했으며, 젓돼지용은 11만8천400톤으로 전월대비 4.8% 증가했다. 또한 육성돈전기는 11만2천707톤으로 전월대비 0.4% 늘고, 육성돈후기는 6만618톤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했으며, 비육돈은 5천789톤으로 0.3% 증가, 비육돈출하는 6천978톤으로 5.9% 감소했다. 한편 번식용수돼지와 번식용암돼지는 각각 592톤, 1천156톤으로 전월대비 3.1%, 1.7%씩 증가했으며, 임신돼지는 5만1천314톤으로 3.2% 증가, 포유돼지는 3만6천535톤으로 0.7% 감소했다.

양돈사료 5~6% 인상 조짐

최근 사료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료업체들이 이달 중 사료 값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산 옥수수 등 국제 사료 곡물 값이 상승하면서 3개월째 원가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료가격 인상이나 시기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초 경에는 대부분의 사료가격이 평균 5~6%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HACCP기준원 출범

(사)축산물HACCP기준원(가칭)이 공식 출범했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이하 HACCP 기준원)은 지난 9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광형근 현 수의과학검역원 과장을

HACCP기준원 신임 원장으로 추대했다.

HACCP기준원은 HACCP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조사·연구,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홍보, HACCP 평가관 교육·양성 등을 실시하게 되며, 조직은 관리국, 평가국(5팀) 2국, 30명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업무는 인수인계 등 준비를 10월중 마무리해 1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HACCP기준원은 지난 20일 기준원 발기인 취지문을 통해 '정부의 조직과 인원 한계 등으로 인해 HACCP 적용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사료 및 유통·판매 단계에 이어 농장 사육단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법인체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사)축산물HACCP기준원(가칭) 결성을 결의한다' 고 밝혔다.

119조원 투융자 사실상 혜택 미미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재원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융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에 대해 사실상 농업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조원 속에 기금을 포함한 10년치의 농림투융자예산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 119조원이 별도로 농촌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19조원에서 자연증가분 4%를 감안해 산출한 10년

치 농림투융자예산 100조9천611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사실상 18조3천28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그 속에는 30조원의 융자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산림자원조성 7조원을 비롯해 농촌경관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증액 예산이 적다는 것이다. 농림부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119조원 투융자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은 통상적인 농업예산 이외에 119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투융자 조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119조원 투융자재원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적인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위반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 원산지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추석 전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품목 중 돼지고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데 이어 지난해보다는 다소 적었으나 여전히 올해도 줄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수는 693개소.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2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6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 22건, 쇠고기 19건, 표고버섯 14건 등으로 적발됐다. 한편 농관원은 냉동고추를 비롯해 원산지둔갑 적발 건수가 많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지속 실시키로 했다.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큰 폭 증가

국산 냉장 돼지고기를 위협하는 수입산 냉장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 양돈현장 비중 높아

내년도 1월부터 농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 실시 된다 하더라도 농업연수생 관리는 기존대로 농협에서 담당하게 된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이호재 사무관은 지난 9월 19일 충남 보령에서 가진 추석명절맞이 농업연수생 위로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관계자 등과 함께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근무중인 충남 보령 및 홍성군 일대 농가를 방문한 뒤 가진 위로행사 및 간담회에서 올해 농업연수생은 총 2천여명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중 축산현장에 60%가 배정됐고, 양돈장에는 전체중 40%에 달하는 연수생이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이호재 사무관은 또 “통합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모든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관리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나 관련부처인 노동부와 협의,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업연수생만은 기존대로 농협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한 양돈협회 등이 요구한 농업분야에 대한 연수생 일정쿼터 배분, 방역문제 등은 국무조정실과 노동부에 적극 개진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보령 사호축산 주홍노 사장은 숙달된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능력 있고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뜻이 있다고 밝혀 양돈장에서 외국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수입산 냉장 돼지고기의 양은 6,479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4,728톤이 수입된 것과 비교하면 1,751톤인 37%가 증가했다. 특히 냉동 돼지고기 수입량이 올해 12만8,736톤, 작년 같은 기간 12만4,143톤으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냉장 돼지고기의 수입이 점차 수입시장 안에서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냉장돈육과 냉동돈육을 합한 전체 수입량은 올해가 13만5,215톤, 작년 같은 기간 12만8,871톤으로 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돈육은 지속 증가해 냉장의 경우 8월까지 4,546톤으로 전년동기 4,484톤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한·일, 돼지고기 소비량 꾸준한 증가세

한국, 일본, 호주 등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주요 국가들에서 돼지고기는 꾸준히 사랑받는 육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2006 농림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주요국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2005년 17.8kg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17.9kg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 90년 14.8kg, 2000년 16.5kg, 2003년 17.3kg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또한 2005년도에 19.6kg으로 90년 17.1kg, 2001년 17.5kg, 2003년 18.6kg, 2004년 19.5kg 등 지속 증가했고, 호주는 90년 17.7kg, 2001년 19.0kg, 2004년 20.9kg, 2005년 21.2kg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90년 30.5kg, 2000년 31.0kg, 2004년 30.4kg, 2005년 29.1kg으로 소비량이 감소했다.

상반기 육가공품 판매량 감소세

최근 육가공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가공품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햄과 소시지, 베이컨, 캔 등 식육가공품의 판매실적은 7만1천9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천600톤에 견줘 2.3% 정도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햄 2만6천206톤, 캔 1만287톤, 혼합소시지 1만3천287톤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5.4%, 12.8%, 0.8% 각각 감소했으며, 소시지는 2만890톤, 베이컨은 1천27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 19.2% 증가했다. 한편 이처럼 육가공품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웰빙 영향으로 육류 및 육제품 수요가 감소한 데다 고기 값이 상승하면서 제품가격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 '가축인공수정'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와 공동으로 축산연구소 등을 순회하며 외국인 연수생 대상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교육에는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 14개국 19명의 연수생이 초청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소, 돼지, 닭 인공수정과 동물생명공학, 축산환경 및 축산물가공이용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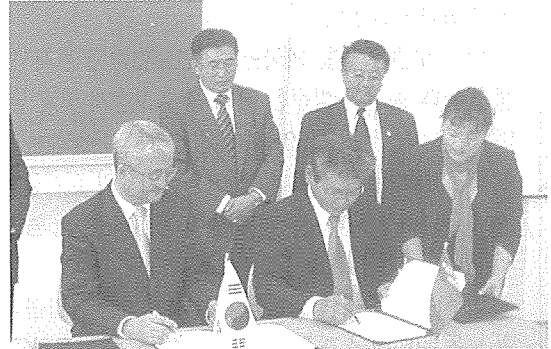
9월말 공포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농림부는 지난 9월 2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축산물의 경우 당초 유기축산물 인증계획에서 이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변경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자까지 확대하고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몽골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0월 2일 몽골 중앙수의검사소(소장 소돔다르자 박사)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공동협력에 대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역 등 수포성 악성전염병 진단기술 개발과 동북아시아 조류인플루엔자 특성 연구를 올해 10월부터 3년간 합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검역원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를 분석하여 동북아시아 내 질병 유행 실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국내 유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모성질환 컨설팅 계약체결 농가 사업 계속 추진

정부가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지원사업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참여가 정원에는 미달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컨설팅 계약체결이 완료된 농가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방역 특별포상 평가에 컨설팅 자문단 지원계획 대비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컨설팅 자문단 지원 대상농가 500농가를 선정해 컨설팅 자문단 운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자부담 50%(국고보조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포기한

양돈농가가 많아 계약을 체결한 양돈농가는 421농가 인 것으로 집계되어 계획대비 84%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는 계약체결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으나 일부 도에서 미달을 기록하여, 재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계약 체결된 농가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방역 특별 포상 평가에 컨설팅 자문단 지원계획 대비 실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캐나다 FTA, 축산물 현행관세 유지 제안

지난 9월 25일~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개최됐다.

한국은 농산물 양허안은 1차 양허안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을 현행 관세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등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에 교환한 양허안을 토대로 11월 4째주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개최기로 했다.

축산연구소, 돈사 악취제거시스템 기술이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지난 10월 15일 금년 5월에 특허출원이 완료된 악취제거 장치인 생물학적 탈취시스템(밀폐형 바이오필터)을 (주)바이오리소스(대표 이사 정승기)에 기술 이전했다.

생물학적 탈취시스템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악취제거용 바이오필터장치를 장착하여 자체검증을 실시한 결과 축산악취의 주성분인 암모니아와 휘발성지방산 등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이며 농가가 사용하기에도 쉽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031)290-1728

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정될 듯

현재 돼지고기가 쇠고기와 달리 육량과 육질을 종합

농림부 신임 축산국장에 이상길씨



이상길 축산국장

농림부는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을 축산국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상길 신임 축산국장은 '58년 경북 청도 출신, 경동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82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디고 축산국 축산정책과장과 농업정보통계관, 식량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적으로 등급판정하고 있어 소매단계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은 등급판정소 이사회 등을 통해 돼지고기도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구분판매가 가능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육질과 육량을 종합 판정하고 있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B, C등급의 도체중량은 증가하고 등지방두께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이 같은 내용의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

농협, 제1회 농업인의 날 슬로건 공모 당선작

농협이 제11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표현할 수 있는 행사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펼쳐요! 미래농업 열어요! 희망농촌'이 최종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